

\*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일에 임하면  
권태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 108 자재어중에서 -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윤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 쇄 : 형제인쇄·광고

## 예경 :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

정 윤 (세원사 주지)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중략)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뵈옵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불교성전』 (397쪽)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사찰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요, 부처님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모르면 부처님을 뵈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인생살이가 두려우면 부처님에게 달려와서 기댈 언덕이라 여기며 쉬기도 합니다.

불자는 장차 부처가 되겠노라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처가 되겠어요? 나는 그냥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걸로 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겸손한 듯 보이지만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마음(증상만)

입니다. 여러분이 마주 대하고 있는 저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을 통해 우리에게 부처인 당신과 똑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묘법연화경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시작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귀한 어른이요, 저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내게 길상(吉祥)의 행운이 찾아오며, 내 인생의 롤모델이시니 우리는 모두 절에 오면 가장 먼저 부처님을 향하여 무릎과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바닥에 대며 정중하게 절을 올려야 합니다.

경전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내가 부처님들에게 올리는 예경은 나의 굳은 신심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보현행원품을 보면, 거기에는 보현보살님의 힘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불자가 되고, 마음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등이 모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마하살님의 도움(가피)과 안내가 있기에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라는 구절은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깊이 믿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절 대웅전 한가운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티끌보다 더 많은 곳에 부처님은 늘 깨달아서 존재하고 있으니, 어느 곳을 향해서라도 그곳에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깊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예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부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경을 올릴 때도 “마치 눈앞에서 뵈옵듯이 받들고” 해야 한다고 보현행원품에서는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부처님을 눈앞에서 보듯이 하느냐는 것이지요. 무비스님의 설명을 참고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 많은 부처님이란 곧 모든 사람을 뜻하며,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라만상과 우주만유를 가리킨다. (중략) 우주자연과 삼라만상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예경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행이며 보살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30쪽)

우리는 부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 여기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는데 나의 몸과 말과 생각이 혼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예경해야 한다”고 보현행원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몸과 입과 뜻으로 선하고 바르게 업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따르니, 부처님을 예경하려고 한 내가 선업을 먼저 짓게 되었고, 그 과보로 즐거움, 행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이런 몸과 마음으로 절을 하면 다음의 행복이 따릅니다. (\*예경에 대해서는 3월호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몸을 갖습니다. (得妙色身)  
둘째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믿습니다. (出語人信)

셋째는 대중 속에 있어도 겁먹지 않습니다. (處衆無畏)

넷째는 부처님께서 마음에 두어 지켜 주십니다. (佛所護念)

다섯째는 훌륭한 몸가짐을 갖습니다. (得大威儀)

여섯째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衆人親附)

일곱째는 여러 천상의 신들이 공경합니다. (諸天愛敬)

여덟째는 큰 복덕을 갖습니다. (具大福德)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면 극락에 왕생합니다. (命終往生)

열째는 깨달음의 경지로 신속하게 도달합니다. (速證涅槃)

『업보차별경』

보살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다짐은, 부처님 계신 곳이면 언제나 다가가서 예경하는 것이요,

그 부처님이 귀하게 여긴 우리 이웃을 부처님처럼 대하며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는 부처님처럼 대하고 예경할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불자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난 그렇게 못 해! 그러니 보살행 같은 건 그만둘 테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왜 저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를 가만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 또한 수행이고,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려고 하기 보다는, 무엇이 있어 내 마음이 그에게는 자꾸 닫히는 것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고 정성스럽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틀림없이 흐뭇하실 것입니다. 『대방광여래장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그 몸에 여러 번뇌가 있어도 여래장(여래의 태아)이니, 언제나 때가 묻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고 덕상(德相)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다.”**

지금 내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도 다 여래의 태아(여래장)요, 이들이 바른 법을 만나면 부처(여래)가 될 분이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불자의 마음이 집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경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살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다짐, 첫 번째 보현행원인 ‘제불예경원(諸佛禮敬願)’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성전의 첫 번째 원의 내용을 다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와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뵈옵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낱알 부처님의 처소에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몸을 나타내어, 그 한 몸 한 몸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 다 예경하는 것입니다. 허공계가 다하여야 나의 이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야 나의 예경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습니다. 생각 생각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불교성전』 (397쪽)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면 그 모든 부처님을 공손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마주치는 모든 중생도 부처님 태아라고 생각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보현행원품에서는 온 중생계가 사라지고 허공계가 사라질 때까지 예경을 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즉 싫증 내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생명을 예경하는 사람이 보살이요, 불자입니다. 정진합시다. ☺



## 세원소식

###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이장희	50,000	유정현	1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0,000
권현지	20,000	유진스님	20,000	청소년교화연합회	200,000
이원호	50,000	이선엽	30,000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0,000
이주연	20,000	광명전기	50,000		
부성보	5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강상훈	20,000				
유상숙	50,000				
박명호	30,000				
이용렬	50,000				
양정하	30,000				
오희순	30,000				
유성윤	30,000				
강진아	20,000				
최부호	50,000				
유홍주	30,000				
권송은	20,000				
이영구	50,000				
최창복	50,000				
김규태	20,000				
한명현	30,000				
조명연	5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박인자	50,000				
김현준	10,000	계	1,000,000	계	70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4년 3월 8일~2024년 4월 4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기부금 지출입니다.



####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매주 수요일 : "품성계발" "분노조절"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검정고시학습반" "또래상담" "품성계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사회증진" "대인관계"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사회적응"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검정고시대비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 매주 수요일 : "방향제만들기" "중등댄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 매주 목요일 : "반려동물 장난감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 매주 금요일 : "마당놀이" "초등댄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 매주 토요일 : "기타교실" "드럼교실" "카네이션만들기" "도자기공예" "요리교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감시단 활동이 진행중입니다.